

# 出産力 低下의 諸要因

金 弘 淑  
文 顯 相

1981年 12月

韓國人口保健研究院



## 머 리 말

높은 出産力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開發途上國들은 급속한 人口成長을 경험하고 있으며 人口問題는 開發途上國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問題로 대두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1960年代初 부터 본격적인 국가 가족계획사업이 전개되어 오늘날 開發途上國들이 경험하고 있는 급속한 人口成長을 둔화시키는데 성공했으며 1960年代 以後 社會經濟的 開發 過程에서 出産力은 크게 低下되었다.

이 報告書는 1960年代 以後 우리나라에서 出産力의 低下를 가져온 主要要因들에 대하여 過去の 研究結果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써 앞으로 종합적인 人口調節對策 수립에 있어 참고자료로 제공코저 한다.

1981年 12月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院長 朴 贊 武



# 目 次

머리말 .....	1
I. 序 論 .....	5
II. 社会開發과 出産力의 低下 .....	7
1. 教育水準과 出産力 .....	7
2. 女性의 經濟活動 参与와 出産力 .....	10
3. 都市化와 出産力 .....	20
4. 所得水準과 出産力 .....	36
5. 結婚年令과 出産力 .....	39
6. 嬰兒死亡과 出産力 .....	43
III. 家族計劃事業과 出産力의 低下 .....	52
IV. 開發途上국에서의 出産力 低下 要因에 對한 多變數 ... 回歸分析 .....	64



## I. 緒 論

이 報告書는 出産力의 低下와 관련된 主要 變數들에 對한 過去의 研究結果들을 요약 정리해 본 것이다.

主要變數으로서는 保健水準, 教育程度, 經濟狀態, 都市化 等 社會開發水準과 관련된 變數를 다루었고 特히 家族計劃 事業은 우리나라에서 出産力의 低下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要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하였다.

오늘날 世界各國의 出産力 水準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國家들은 TFR (合計出産率)이 5 내지 6 이고 몇몇 國家들은 7 以上인 경우도 있어 세계에서 出産率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반면 北美地域 特히 美國, 캐나다는 TFR이 1.7 내지 1.8 에 불과 하며 대부분의 유럽지역의 國家들도 TFR이 2 以下로서 세계에서 出産率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아세아 國家의 경우는 國家別로 出産力의 差異가 심하여 暹글라메쉬, 이란, 아프카니스탄 等은 TFR이 6 以上 인가하면 日本, 싱가포르 1.8 程度이고 한국, 대만은 2.8 程度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그들의 經濟社會的 開發水準, 文化的 背景, 人種等에 따라 出産力의 심한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날 人口問題에 대한 觀心은 세계의 모든 國家들이 앞으

로 얼마나 짧은기간동안에 出産力을 代替水準까지 낮출수 있겠는가 하는 問題이다.

一般的으로 出産力의 低下와 관련하여 過去の 研究結果를 보면 두가지 뚜렷한 대조적인 見解가 있다. 첫째는 出産力을 낮추는 최상의 方法은 社会經濟的 開發이라고 주장하는 개발우선론자들이고 둘째는 家族計劃事業에 力點을 두고있는 學者들이다.

이 報告書에서는 1960年代 以後 우리나라에서의 出産力 低下와 관련하여 1) 教育水準 2) 女性의 經濟活動參與, 3) 都市化 4) 所得水準 5) 女性의 結婚年令 6) 嬰兒死亡水準 等 社会開發水準과 관련된 要因들을 일차적으로 정리해본 다음 家族計劃事業이 出産力 低下에 미친 影響에 대하여 과거의 調査資料를 中心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開發途上국에서의 出産力 低下要因에 대하여 세계적인 석학 Mauldin 과 Berelson의 多變數回歸分析 結果<sup>1)</sup>를 요약제시하였다.

---

1) W. Parker Mauldin, Bernard Berelson, "Conditions of Fertility Decline in Developing Countries, 1965-1975.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9, No.5.

## Ⅱ . 社會開發과 出産力の 低下

### 1. 教育水準과 出産力

教育水準別로만 본다면 어느나라에서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낮은 出産力을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인의 특성별로 나누어 보아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한例로, 농촌부인들의 경우에서도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평균출산아수는 적었고,<sup>1)</sup> 都市化狀態에 따라서도, 즉 移住者(도시로의) 婦人에게서도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出産水準은 낮았다.<sup>2)</sup>

表 1-1은 1971年부터 1979년까지 우리나라의 出産力 調査資料에서 파악된 教育水準別 平均出生兒數이다. 年數가 最近에 올 수록 出産水準이 낮아지고 있으며 각각의 年度에서 모두 教育水準과 出産水準이 逆의 關係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教育水準別 出産力の 差異는 단순히 教育效果의 결과만은 아니다. 教育水準은 所得水準, 經濟活動參與 등과 상호

---

1) 文顯相, 金弘淑, 「都市 - 農村間人口移動現況과 家族計劃 및 出産水準의 變動」 家族計劃研究院, 1979, p. 66.

2) 前掲書, P. 104.

관련성이 밀착되어 있어 이中에서 純粹한 教育의 效果만을 추  
 려내기란 변수 자체의 性質上 不可能한 작업이다. 따라서  
 教育水準과 기타 社会・經濟變數를 볼 때 教育水準變數와 다

表 1-1 : 年度別 教育水準別 平均出産兒數

	1971 <sup>1)</sup>	1974 <sup>2)</sup>	1976 <sup>3)</sup>	1978 <sup>4)</sup>	1979 <sup>5)</sup>
無 學	5.6	5.3	5.3	4.6	4.5
國民學校	3.8	3.6	3.7	3.4	3.4
中學校	2.6	2.2	2.6	2.4	2.4
高等學校	2.5	2.4	2.2	2.1	2.1
大學以上	—	2.3	—	2.2	2.0

1) KIFP, Report on 1971 Fertility—Abortion Survey 1973, p. 136.

2) " , EPB, 1974 韓國出産力 調査, 1976.

3) 朴炳台外, 1976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 調査, 家族計劃  
 研究院, p.127.

4) 高甲錫, 卞鍾和, 1978 年 家族計劃 및 出産力實態 調査, 1979, p.151.

5) 高甲錫, 咸喜順, 1979 年 한국 피임 보급 실태 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80, p.59.

른 變數들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方法<sup>3)</sup>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Graff (1979)<sup>4)</sup>는 分析資料의 質에 따라 分析的인 次元이 결정되기 때문에 教育水準에 대한 資料의 質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朴은<sup>5)</sup> 教育은 初婚年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表 1-2. 참조) 教育에 의하여 初婚年令이 늦

表 1-2 : 教育水準別 初婚年令

	無 學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以上
초혼년령	21.3	21.9	22.8	25.0	25.6

3) R. Freedmen, The Sociology of Fertili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5.

4) Harvey J. Craff, "Literary Education, and Fertility, Past and Present: A Critical Review,"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5, No. 1, March 1979, pp. 105-140

5) 朴在米, 出生. 死亡水準의 推定과 經濟, 社会的 變數와의 관한 研究, 1974 韓國出產力調查特別分析시리즈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가족계획연구원, 1980, p. 39.

어지고 있음이 出産力低下의 요인이 됨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2. 女性의 經濟活動 参与와 出産力

既婚 女性의 經濟活動과 出産力에 관한 研究는 많이 이루어졌다. Mincer(1963)<sup>1)</sup>, Willis(1973)<sup>2)</sup>에 의하면 女性人力の 經濟活動과 이에 따른 所得擴大는 其他活動의 機會費用을 높임으로써 出産力減少를 초래하고 나아가서 人口增加率의 감소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子女의 數와 質에 대한 Backer(1976)의 研究<sup>4)</sup>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Mincer Jacob,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National Bureau of Economics ed., Aspects of Labor Economics, 1962.

2) R. J. Willis,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Behavior," JPE 81(2), part 2, 1973, pp. 14~64.

4) G.S Becker and Nigel Tomes, "Child Endowments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PE 84 (4), part 2, 1973, pp. 143-162.

Dixon(1975)은 <sup>5)</sup>여성의 취업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면서 여성이 社會活動을 통해 結婚, 가정 및 子女 가치관에 변화를 주게 된다고 보고 있다. 즉, 취업이 초혼년령을 상승시키고, 피임에 대한 지식이나 生活態度 및 經濟水準에 영향을 줌으로써 出産力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본다. 또한 그는 여성의 역할과 出産力間的 관계에서 <sup>6)</sup>發展途上国에서는 부인에 부여된 社會·經濟的 役割이 高出産率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는 부인 고용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집안에서 집밖의 취업으로) 出産率을 變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여성의 취업과 出産力은 상관관계가 깊은데 선진국

---

5) Ruth B. Dixon, "Women Rights and Fertility," Reports on Population Family Planning, No.7, Jan. 1975.

6) Ruth B. Dixon, "The Role of Rural Women :Female Seclusion Economic Production and Reproductive Choi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edited by R.G.Ridker,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pp.210~321.

에서는 “+” 관계 (positive relation)로, 후진국에서는 “-” 관계 (negative relation)로 나타남을 分析한 이들은 Goldstein (1972), Heer, Turner(1965), Piepmeier, Adkins(1973)<sup>7)</sup> 등이 있다. 또한 都市, 農村에 따라 취업변수가 다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은 Bindary(1973), Collver(1968), Gendell(1967)의 研究<sup>8)</sup>를 보면 알 수 있다.

---

7) Sidney Goldstein, “The Influenc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Education on Fertility in Thailand,” *population Studies*, vol. 26, No.3, November 1972, pp. 419 - 436.

D.M. Heer and E.S. Turner, “Areal Difference in Latin American Fertility,” *Population Studies*, vol. 18, 1965, pp. 279 - 292

K.B. Piepmeier and T.S. Adkins, “The Status of Women and Fertility,”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vol. 15, 1973, pp. 507 - 520

8) Aziz Bindary and T.H. Hollingsworth, “Urban - Rural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an's Employment and Fertility,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vol. 5, 1973, pp. 159 - 167.

O. Andrew Collver, “Women's Work Participation and Fertility in Metropolitan Areas,” *Demography*, vol. 5, No. 1, 1968, pp. 55 - 60.

M. Gendall, “Fertility and Development in Brazil,” *Demography*, vol. 4, 1967, pp. 143 - 457.

Blau, Duncan(1967)과 Weller(1968)<sup>9)</sup>은 각사회, 地域, 時點에 따라 女性就業의 意味가 다르고 또한 女性의 역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취업상태에서도 職種에 따라 다른 出產水準을 보이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Tabah(1975)<sup>10)</sup>는 비농업분야에서의 고용기회는 教育水準과 함께 증가하며 높은 教育水準은 낮은 出產力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資料에서도 나타난 분석결과<sup>11)</sup>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 그 이유는 우선 부인이 취업한 절대수의 規模가 작고, 또한 부인의 出產力과 관련된 취업관계의 調査研究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과 출산력에 관한 研究는 몇몇이 있다.

---

9) P.M. Blau and O.D. Duncan,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1967.

R.H. Weller, "The Employment of Women's Role Incompatibility and Fertility," Milband Memorial Fund Quarterly, vol. 46, 1968.

10) Leon Tabah,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3rd World, vol. 2, IUSSP, 1975, p. 182.

11) 홍사원, 한인숙, 한국여성의 취업상태와 출산력 : 1970, 미간행 자료, 1978.

1975年 인구센세스 5% 표본자료를 分析한 洪의<sup>12)</sup> 研究 結果를 보면, 婦人의 教育程度, 거주지역, 취업여부변수가 복합적으로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表 2-1 과 表 2-2 을 보면 教育程度에 따라 1970 년과 1975 년간의 출산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같은 기간내에 教育과, 거주지역과, 취업변수중 출산력에 가장

表 2-1 : 就業狀態 및 教育水準別 合計既婚出産力: 全国 (1975年 現在)

	總計 不就學		就 業						
			計 兩立職		非 兩 立 職				
					小 計	事務職	販売職	運送· 서비스職	勞動職
總計	4.92	4.89	4.91	5.79	3.41	3.03	4.66	2.65	3.16
不就學	4.91	4.77	5.06	6.08	2.75	—	4.46	1.51	2.90
國民學校	5.23	5.20	5.24	5.83	3.77	2.32	5.04	2.88	3.55
中學校	4.44	4.58	3.95	5.08	3.29	2.49	4.40	2.63	2.84
高等學校	4.11	4.29	3.31	4.68	3.07	2.92	3.67	2.72	2.70
專門學校 以上	3.55	3.69	2.85	—	2.79	3.35	3.39	1.59	2.47

—는 婦人의 數가 100名 미만

資料: 洪思媛, 女性的 취업상태와 出産力變化.

12) 洪思媛, “女性的 취업상태와 出産力變化,” 한국개발연구, vol. 1, No. 1, 1979, p. 167 - 172.

表 2-2 : 就業狀態, 居住地 및 教育水準別 合計既婚出産力 (1980年 現在)

		總計	不就業	就業		
				小計	兩立職	非兩立職
全 国	總計	5.46	5.35	6.50	6.87	4.28
	不就學	6.40	6.32	5.65	6.39	3.76
	国民學校	5.52	5.45	3.76	5.47	3.02
	中學校	4.16	4.41	3.34	4.65	3.17
	高等學校	4.08	4.28	3.25	5.26	3.21
	專門學校 以上	4.15	4.31	5.67	6.50	3.64
大 都 市	小計	4.20	4.39	2.80	4.32	2.75
	不就學	4.51	4.89	2.65	4.14	2.55
	国民學校	4.40	4.61	2.75	3.63	2.71
	中學校	3.94	4.09	2.63	—	2.54
	高等學校	3.94	4.06	2.74	—	2.73
	專門學校 以上	4.08	4.24	3.04	—	3.04
中小都市	小計	4.85	5.03	3.79	5.48	3.27
	不就學	5.29	5.60	4.25	5.81	3.04
	国民學校	4.99	5.17	3.90	5.50	3.25
	中學校	4.37	4.51	3.39	4.58	3.24
	高等學校	4.37	4.56	3.13	—	3.05
	專門學校 以上	4.04	4.22	3.51	—	3.49
農 村	小計	6.24	6.16	6.36	6.63	4.76
	不就學	6.80	6.75	6.87	7.00	5.56
	国民學校	6.17	6.11	6.26	6.52	4.81
	中學校	5.01	5.08	4.83	5.55	3.85
	高等學校	4.78	4.88	4.31	4.79	4.16
	專門學校 以上	4.21	4.52	3.67	—	3.52

—는 婦人의 數가 100名 미만

資料 : 洪·韓 (1978).

큰 변화를 준 변수는 취업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2-3을 보면 1975년 현재 可姪既婚婦人中 39.8%가 취업하고 있으며 그중 62.6%가 兩立職<sup>13)</sup>에 종사하고 있다. 家事兩立職에 종사하는 婦人과 非兩立職 및 非就業婦人의 出產水準은 각각 5.8名, 3.5名, 4.9名이었다. 즉, 非兩立職에 종사하는 부인의 出產水準이 제일 낮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취업부인의 출산수준은 비취업부인보다 현저히 낮았고, 취업부인 중에서도 家事非兩立職의 부인이 더 낮은 出產水準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具는<sup>14)</sup> 1974 WFS - 韓國資料를 分析하였는데 전반적으로 洪(1978)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출산력과 經濟活動期間과의 관계에서 經濟活動期間에 유의한 효과를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인의 연령과 거주지 별로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도시부인의 經濟活動은 임금수준에 민감하고 郡部의 經濟活動은 취업기회의 有·無에 민감하게 나타났다. 즉, 전자의 임금수준은 인적자원과 취업

13) 洪(1979)은 취업상태와 출산력을 분석함에 있어 취업을 家事兩立職과 非兩立職을 분리해야 보다 명확한 영향정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함. 家事兩立職에는 농업, 어업, 임업을, 非兩立職에는 전문, 사무직, 판매직, 운수직, 노동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14) 具成烈, "既婚女性の 經濟活動과 出産力," 한국개발연구, vol. 1, No. 1, 1979, pp. 138 - 144.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이며, 教育水準과 出産力에 영향을 주게 된다. 후자의 임금수준은 출산자녀수나 남편의 教育水準등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젊은 부인층은 자신의 教育水準에 대한 응분의 보수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임금수준과 취업기회가 일정할때는 教育水準이 낮을 수록 經濟活動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表 2-4는 박이<sup>15)</sup> 1974年 WFS-韓國資料를 分析한 研究結果를 제시하고 있다. 이 研究結果를 보면 結婚後 5年間 취업경험 및 種類別 초혼년령의 차이가 현저하였다. 즉, 취업상태가 초혼년령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초혼년령의 상승은 低出産率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 分析에서는 남편의 職業에 따라 (表 2-5) 出産水準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以上과 같은 国内外 女性の 出産力과 經濟活動에 관한 研究結果를 통해 人口政策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제공할 수 있겠다.

---

15) 박在榮, 出生, 死亡水準의 推定과 經濟·社会的 變數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1974 한국출산력조사 특별분석시리즈 1,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가족계획연구원, 1980, p. 44-45.

表 2-4 : 취업상태별 초혼년령

초혼년령	비취업	취업		합계
		농업 부문	비농업 부문	
15-	87 3.8	34 3.1	7 .9	41 2.2
15-17	651 28.1	304 27.6	78 9.7	382 20.1
18-19	586 25.3	343 31.2	153 19.0	496 26.1
20-21	518 22.4	251 22.8	208 25.9	459 24.1
22-24	377 16.3	154 14.0	240 29.9	394 20.7
25-29	93 4.0	14 1.3	113 14.1	127 6.7
30+	2 0.1	0 0.0	5 .6	5 .3
합계	2314 100.0	1100 100.0	804 100.0	1904 100.0

資料 : 1974 年度 KNFS Country Report.

出産水準을 낮추기 위해 여성의 취업기회는 확대되어야 하고 동시에 도시 부인에게는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촌부인에게도 취업기회를 넓혀줘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社會·經濟的 여건하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表2-5 : 남편직업, 결혼기간별 평균 출산아수

남편직업	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 +
무 직	2.3	(0.8)		2.5				
전문직	2.9	1.0	2.6	3.3	3.7	4.5	(4.5)	
사무직	2.8	1.1	2.8	(3.2)	3.9	(4.5)	(4.7)	
상 업	3.1	1.1	2.6	3.6	3.7	4.8	4.6	(5.4)
농 업	4.6	1.1	3.0	4.1	5.1	5.8	6.2	6.8
숙련직	3.0	1.1	2.6	3.5	4.2	4.6	4.9	5.7
비숙련직	3.8	1.3	2.6	3.8	4.6	5.5	(5.2)	(6.0)

資料 : 1974 年度 KNFS Country Report.

### 3. 都市化와 出産力

開發途上國을 中心으로 都市化가 出産力을 낮추고 있음은 一般化된 사실이다.<sup>1)</sup>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都市가 갖고 있는 特性때문인지, 즉 移住者가 도시 생활에 적응해나가는 것 때문인지 또는 都市로 移住해 오는 移住者들 自體의 特性때문인지에 대해서는 論難이 많다.<sup>2)</sup> 한예로 Hendershot(1976)는 移住者가 都市生活에 “適応(adaplation)”하기 때문에 都市가 갖고 있는 低出産力으로 적응해간다고 調査資料를 들어 주장하고 있는 반면 Ro(1976)은 移住者가 都市生活에 適応해 가기 때문이 아니라 移住者 本人이 갖고 있는 低出産的인 “特性”(教育水準, 生活水準, 어떤 目的에 대한 추진력, 강한 의지력 등)때문에 低出産으로 간다고 본다. 따라서 이 理論을, 연장시키면 移住者가 갖고 있는 그 “選別的 特性(selectivity)”

---

1) David N. Holmes Jr., “Introductions,” in The Dynamics of Migration: Internal Migration and Fertility, Occational Monograph Series vol. 1, No.5, Communication Programs, The Smithsonian Institute, 1976, pp. 191 - 196.

2) Gersy E. Hender shot, “Social Class, Migration and Fertility in the Philippines,” op cit., 1976, pp. 197 - 257.

Kong - Kyun Ro, “Migration and Fertility in Korea,” op. cit., 1976. pp. 259 - 275.

때문에 그들은 低出産이며 그렇기 때문에 都市에 있거나 農村에 있거나 같은 出産水準을 나타내리라고 보게 된다. 이에 대한 論争점을 가지고 Bun-Song Lee (1980)<sup>3)</sup>는 1974年 WFS 韓國資料를 分析한 結果, 移住者의 “選別性(selectivity)” 때문이 아니라 都市生活에로의 適応(adaptation)” 때문에 移住者의 出産行態가 低出産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人口移動의 類形이 꺼꾸로(과거의 農村에서 都市로에 대해) 바뀌지고 있음은 歐美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形態이다. Tucker(1976)에 의하면<sup>4)</sup> 非大都市의 移住形態를 分析했는데(1970-1975년의 美國의 調査資料로) “들어온 移住者”(in-migrants)는 23% 증가했고 “나간 移住者”(out-migrants)는 12% 감소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形態는 人口크기와 연령구조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形態는 非大都市의 分散化(decentralization)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說

---

3) Bun - Song Lee, Stephen Farber,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 of Rural - to -Urban Migration on the Fertility of Migrants in Developing Countries, Division of Research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1980, p. 4-4, 4 - 11, 4- 34.

4) Jack, C. Tucker, “Changing Pattern of Migration between Metropolitan and Non -Metropolitan Areas in the United States :Recent Evidences” Demography, vol. 13, No4, November 1976, pp. 435 - 443.

명하고 있다. 이는 都市化가 한창 進行中에 있는 第3諸国  
들에서 大都市로의 集中이 한계에 미치면 나타나게 될 現象임<sup>5)</sup>  
은 自명한 일이다.

一般的인 移住者の 特性에 대한 分析을 보면 Muller(1977)<sup>6)</sup>  
는 移住形態에 따라 社会·經濟水準이 차이가 남을 分析하고  
있다. 즉, 出生州(state)에 살고 있는 사람과 出生州로 되  
돌아온 사람과 出生州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chronic  
mover)中 맨마지막 집단이 제일 높은 社会·經濟的 지위에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Ro(1976)의 研究結果와 부합되는  
一面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Li(1976), Freeman(1976)등은<sup>7)</sup>  
移住者の 고용율이 非移住者보다 낮다는 것을 分析하고 있다.  
Fuller(1981)<sup>8)</sup>는 都市移住者(cityward migrants)는 農村거주자

---

5) 大都市로의 人口集中現狀을 막기 위한 정책적 次元과 移住者들  
의 移住性向의 變化로 인해서 나타나는 現狀으로 본다.

6) Ann R. Miller, "Interstate 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Some  
Social Economic Differences by Type of Move," Demography,  
vol. 14, No 1, Feb. 1977, pp. 1-17.

7) Wen Lang Li, "A Note on Migration and Employment," Demography,  
vol. 13, No 4, November 1976, pp. 565-570

Linton C. Freeman, Morris H. Sunshine, "Race and Intra-urban  
Migration," Demography, vol. 13, No 4, November 1976,  
pp. 571-575.

8) Theodore D. Fuller, "Migrants - Native Socio - Economic Differen  
tials in Thailand," Demography, vol. 13, No 1, Feb. 1981.  
pp. 55-65.

보다 教育水準이 더 높았으며, 좀더 教育받은 농촌거주자는 都市移住者로 더 잘되는 경향이 있고, 좀더 教育받은 邑거주자 (more educational native townspeople) 는 大都市 (Bangkok) 로 더 잘 移住해가며, 또한 都市로 移住해 온 期間이 긴 移住者가 都市居住者 (native) 보다, 最近移住者보다 經濟적으로 上位에 있음을 分析하고 있다.

칠리 (發展途上國中에서는 좀더 발전된 國家인) 의 資料로 分析한 Herold(1979)<sup>9)</sup> 의 研究結果를 보면 1970年 以後부터는 수도 (산티아고) 로 集中되던 移住現象이 分散되었고 수도와 기타 都市로의 移住率은 비슷하고, 移住者和 教育水準은 앞선 研究結果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關係 (positive relation) 에 있으나 低教育-低職業水準인 젊은 연령층의 移住者들의 一次 目的地는 수도가 지배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研究를 綜合해 보면 Chile의 chronic migrants (non-return migrants) 의 높은 社会·經濟的 地位와 移住率 (rate of migration) 과 教育水準과는 긍정적인 상관 (positive associations) 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Miller(1977)<sup>10)</sup> 의 研究結果와 유사하다.

---

9) Joan M. Herold "Female Migration in Chile: Types of Move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Demography, vol. 16, No. 2, May 1979, pp. 257-255

10) Ann R. Miller, op cit., 1979.

그러면 우리나라의 資料에 의한 分析을 검토해 보기 前에 居住者에 따른 出産水準의 差異에 關係 現地調査資料를 通해 大략적인 比較를 해 보겠다. 表 3-1을 보면 年度가 進行됨에 따른 出産力의 低下를 통제하더라도 都市農村間의 出産水準은 현저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1 : 居住地別 合計出産率 : 1960-1979

	1960 <sup>1)</sup>	1966 <sup>1)</sup>	1968 <sup>1)</sup>	1970 <sup>1)</sup>	1971 <sup>1)</sup>	1973 <sup>1)</sup>	1974 <sup>1)</sup>	1976 <sup>2)</sup>	1979 <sup>3)</sup>
전국	6.0	5.4	4.2	3.9	4.4	3.9	3.6	3.2	2.6
都市	5.4	3.7	3.5	3.1	4.0	3.3	2.9	2.8	2.4
農村	6.7	6.5	4.8	4.4	5.2	4.7	4.3	3.6	3.1

1) EPB/BOS and KIFP, WFS-KNFS 1974, pp. 89-93.

2) 朴丙台, 外, 1976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78, p. 124

3) 高甲錫, 咸喜順, 卞鍾和, 1979 韓國避妊普及實態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80, p. 39.

資料分析을 보면 Han (1976)<sup>11)</sup>의 研究結果는 出産力에 關係한 教育水準과 人口移動과의 關係를 分析하고 있다. 居住地背景을 통제(control) 시킨 後 非移住者와 移住者의 ASMFR을 比較하고 있다. 表 3-2을 보면 非移住者보다 移住者가 낮은 出産水

表 3-2: 移住狀態別 出産力

MARITAL AGE-SPECIFIC FERTILITY RATES BY ORIGIN OF MIGRATION  
FOR METROPOLITAN, URBAN, AND RURAL MIGRANTS AND NON-MIGRANTS  
1965-70

Metropolitan Non-Migrants and Migrants:

Age of Women	All		Metropolitan migrants from		
	Metropolitan Non-migrants	Metropolitan Migrants	Metropolitan	Urban	Rural
15-19	86.5	62.8	84.1	73.8	58.6
20-24	167.2	149.7	132.9	144.3	152.8
25-29	261.5	243.6	227.6	222.2	253.3
30-34	210.6	204.9	193.8	194.2	211.1
35-39	93.1	99.1	83.1	89.7	105.8
40-44	35.2	39.4	23.7	28.4	46.3
45-49	11.6	12.8	10.0	13.7	12.8
TFR	4,328.5	4,061.5	3,776.0	3,831.5	4,203.5

(continued)

Urban Non-migrants and migrants:

Age of Women	Urban Non-migrants		All Urban Migrants		Urban migrants from		
	Urban	Non-migrants	Urban	Migrants	Metropolitan	Urban	Rural
15-19	86.5		69.5		56.4	78.4	71.3
20-24	185.3		162.4		154.1	159.5	164.7
25-29	288.5		256.1		225.0	246.0	266.7
30-34	232.6		230.6		212.5	230.8	235.5
35-39	120.9		151.8		111.6	124.6	127.6
40-44	56.1		57.8		36.2	52.9	63.5
45-49	18.1		17.3		12.1	18.2	18.2
TFR	4,940.0		4,7727.5		4,039.5	4,552.0	4,737.0

(continued)

Rural Non-migrants and Migrants:

Age of Women	Rural Non-migrants	All		Rural migrants from	
		Rural Migrants	Metropolitan	Urban	Rural
15-19	103.4	77.5	61.8	91.2	78.1
20-24	212.5	163.8	161.4	159.4	169.9
25-29	327.1	254.1	237.2	249.2	269.7
30-34	279.9	236.3	214.7	238.7	251.4
35-39	189.6	147.3	124.1	141.8	168.9
40-44	107.9	79.1	49.6	76.8	105.2
45-49	35.6	26.0	16.1	26.4	33.3
TFR	6,280.0	4,920.5	4,324.5	4,917.5	5,382.5

Source: In-Suk Han, Effects of Education and Migration on Fertility, p. 65.

準을 보이고 있다. 大都市의 경우 非移住者보다 他大都市에서 移住해온 移住者の 出産水準이 더 낮았다. 이러한 現象은 中·소도시 농촌의 경우에서도 똑같은 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 研究結果는 人口移動이라는 行爲 (behavior)가 出産水準에 影響을 주고 있는데 (거주지가 都市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移住라는 사건이) 그러한 낮은 出産水準의 原因이 어떤 選別性 (Selectivity)에 기인하는지는 심층분석을 필요로 한다.

Park (1978)의 分析結果를 보면<sup>12)</sup> 일종의 “選別性 (selectivity)” 側面的 研究로 볼 수 있다. 도시거주자 (city-stayer)보다 移住者가 出産水準이 더 낮았고 農村의 경우 농촌거주자 보다 농촌으로의 移住者の 出産水準은 더 높았다 (表 3-3 참조). 또한 表 3-4은 각 社會·經濟變數에 따른 出産水準을 나타내고 있는데 같은 變數內에서 出産水準差異의 폭이 移動狀態에 따라 差異를 크게 보이고 있다. 이는 그 해당變數의 效果인지, 아니면 都市의 價值觀과 농

---

註 12) Sang-Tae Park, Urbanization and Fertility in Korea: 1960 - 1970,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978, p.105,145.

촌의 가치관(子女數에 대한)의 차이에 서인지는 심층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文(1979)의 연구결과를 보면<sup>13)</sup> 出產水準이 제일 낮은 층은 都市의 非移住者이고 그 다음이 都市로의 移住者였다(표 3-5 참조). 그러나 도시의 거주기간에 따른 出產水準에는 差異가 없었다.

이렇듯 都市化에 따른 出產水準의 變動에 관한 分析은 分析資料의 한계로 말미암아, 즉 移住者에 관한 移住歷(migrants history)에 관한 調查資料의 미비로 좀더 명확한 연구결과가 어렵다.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都市化와 出產力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드문 이유도 상기한 것에 기인한다 하겠다. 勞動力과 出產力의 研究와 함께 앞으로 分析의 餘地가 많은 분야로 指目되고 있다.

Freedman은<sup>14)</sup> 出產力低下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社會·經濟發展에도 기여할 수 있는 變數로서 教育水準, 취업구조, 所得水準, 都市化變數등을 들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教育水

---

註 13) 文顯相, 金弘淑, 都市-農村間 人口移動現況과 家族計劃 및 出產水準의 變動, 家族計劃研究院, 1979, pp.102-103.

14) R. Freedman, The Sociology of Fertili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5.

表 3-3: 人口移動と 出産力

CHILDREN-EVER-BORN PER THOUSAND WOMEN (ALL WOMEN) BY FIVE-YEAR AGE GROUPS, LIFE TIME MIGRATION STATUS, AND RESIDENCE FOR 1960<sup>1)</sup>

Age	Residence in 1960			
	Urban		Rural	
	Non-migrant <sup>2)</sup>	Migrant <sup>3)</sup>	Non-migrant <sup>2)</sup>	Migrant <sup>3)</sup>
15-19	12	21	34	81
20-24	586	606	837	928
25-29	2,247	2,039	2,523	2,290
30-34	3,764	3,301	4,026	3,668
35-39	4,602	4,322	5,157	4,872
40-44	5,386	4,931	5,713	5,326
45-49	5,474	4,909	5,598	5,514
Total	2,423	2,361	2,880	2,917

(continued)

Age	Residence in 1960			
	Urban		Rural	
	Non-migrant <sup>2)</sup>	Migrant <sup>3)</sup>	Non-migrant <sup>2)</sup>	Migrant <sup>3)</sup>
	Number of women (sample frequencies in thousands) <sup>4)</sup>			
15-19	2,437	1,414	6,717	504
20-24	1,858	1,421	6,255	721
25-29	1,726	1,375	5,466	730
30-34	1,400	1,168	4,489	624
35-39	1,257	1,038	4,319	555
40-44	913	695	3,519	374
45-49	745	519	3,275	333
Total	10,336	7,630	34,040	3,841

1)Source: 1960 Census (1% sample tape).

2)Persons born in the same province.

3)Persons born in different province.

4)Number of women times 100 approximately equals the Census enumerated population of women

Source: Sang-Tae Park, Urbanization and Fertility in Korea; 1960-1970, p.105.

表 3-4: 婦人特性別 出產兒數

CHILDREN-EVER-BORN PER THOUSAND EVER-MARRIED WOMEN AGED 35-44  
 ACCORDING TO SELECTED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BY  
 RESIDENTIAL BACKGROUND AND BY RESIDENCE, WHERE TOWNS (EUPS)  
 ARE INCLUDED IN URBAN, 1971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Children ever born per 1000 women					
	Urban back- ground (A)	Urban Rural back- ground (B)	Urban back- ground Total (C)	Urban back- ground (D)	Rural back- ground (E)	Total ground (F)
Education						
No education	5191	5099	5127	5829	6052	6039
Primary (1-6)	4242	4754	4565	4605	5351	5216
Middle school (7-9)	4042	3796	3936	4313	4292	4304
High school and over (10+)	3588	3750	3612	2800	a	3154
Husband's education*						
No education	6208	5689	5870	a	6358	6343
Primary (1-6)	4985	5029	5015	5393	5833	5775
Middle school (7-9)	5316	5038	4733	4729	5349	5220
High school (10-12)	4762	4564	4412	4233	5156	4925
College and over (13+)	3670	4569	3980	3800	5000	4586

(continued)

	Children ever born per 1000 women					
	Urban (city and town)		Rural		Total	
	Urban back-ground (A)	Rural back-ground (B)	Urban back-ground (C)	Rural back-ground (D)	Urban back-ground (E)	Rural back-ground (F)
Husband's occupation*						
Farmer, fisherman	6130	5773	5896	5426	6011	5964
Other non-professional**	4420	4959	4733	4697	6650	5348
Professional and wage earning clerical and sales worker**	4053	4606	4306	4348	5103	4889
Working status						
Not working	4212	4826	4538	4812	5822	5685
Unpaid family worker	4824	4708	4756	a	5815	5779
Self-employed	4115	4467	4307	4438	5201	5054
Employee	3692	4560	4263	a	5594	5220
Material property						
Low (0-2)	4569	4857	4759	4814	5861	5777
Middle (3-5)	4232	4709	4505	4988	5671	5558
High (6+)	3975	4591	4245	3974	5241	4836

(continued)

Religion	Children ever born per 1000 women					
	Urban (city and town)			Rural		
	Urban back- ground (A)	Rural back- ground (B)	Total (C)	Urban back- ground (D)	Rural back- ground (E)	Total (F)
No religion	4363	4765	4598	4648	5793	5656
Buddhist and Confucian	4163	4759	4472	4900	5503	5379
Protestant and Catholic	3782	4455	4116	4556	5458	5247
Total						
Ever-married	4184	4716	4476	4699	5728	5584
Currently-married	4376	4938	4682	4916	5836	5710

<sup>a</sup>Number of women less than 10.

\* Same as Table 4.3.

\*\* Same as Table 4.3.

Source: Sang-Tae Park, Urbanization and Fertility in Korea.  
1960-1970, p. 145.

表 3-5: 都市移住者, 非移住者, 農村的 年齡別 平均出產兒數

年 齡	都 市		農 村
	非 移 住 者	移 住 者	
15 - 19	0.3	0.7 0	0.6
20 - 24	0.9	0.9	1.2
25 - 29	2.0	1.9	2.3
30 - 35	30.3	2.8	3.8
35 - 39	4.0	3.7	5.0
40 - 45	4.4	4.2	5.8
41 - 49	5.5	5.3	6.2
15 - 49	2.8	3.1	4.2
婦 人 數	1,096	1,039	2,660

資料: 文顯相, 金弘淑, 都市-農村間 人口移動과 家族計劃 및 出產  
水準의 變動, p.102.

準의 향상, 취업기회의 확대, 都市化등은 家族計劃事業에 의한  
出産力低下가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암시하는 現狀況에서, 앞  
으로 人口政策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重視되어야할 主  
要變數임을 以上の 研究結果와 더불어 강조하는 바이다.

#### 4. 所得水準에 出産力

一般的으로 低所得國家에서는 相對的으로 所得이 높은 계층이 所得이 낮은 계층에 비하여 出産力은 낮다.

우리나라에서 所得水準에 따른 出産力의 差異를 研究한 結果는 매우 더물다.

趙<sup>1)</sup>는 夫婦所得別 出産行態의 分析을 시도하였는데 몇가지 重要한 結果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表4-1에서 子女를 갖는 가장 重要한 理由를 所得水準에 따라 살펴보면 所得水準이 높은층일 수록 자녀를 갖는 가장 重要한 理由로서 「자녀를 기르는 재미」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하면 所得이 낮은 층에서는 「老後에 生計를 의존한다든가 代를 잇고 祭事를 지낸다」는 전통적 자녀가치관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몇명의 子女가 많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高所得層에서는 3名이면 많다고 대답한 부인이 33%, 4名이면 많다고 생각할 부인이 40%인데 비하며 低所得層에서는 18%, 34%로서 所得이 낮은층일수록 많다고 인식하는 子女數는 많아지고 있다.

가장 重要한 老後生活手段으로서 「子女의 도움」이라고 대

---

註 1) 趙南勳 等, 出産行態에 영향을 미치는 經濟的 要因分析, 家族計劃研究院, 1977.

表-4-1 : 所得水準別 出産行態

子女를 갖는 가장 重要한 理由	所 得 水 準			
	40 萬원 미 만	40 萬— 70 萬	70 萬— 150 萬	150 萬 원 이상
子女를 기르는데 즐 거움을 느낄수 있다	6.4 %	12.2 %	14.8 %	27.1 %
子女가 있으면 老後 에 依存할 수 있다.	31.4	28.7	25.2	16.0
子女가 집안의 代를 잇고 祭事를 지낸다	32.0	26.5	25.5	18.4
多子女라고 생각하는 子女數				
3 名	18.7	26.5	33.3	33.1
4 名	34.2	41.2	39.5	40.4
5 名	32.9	24.6	19.3	20.4
가장 重要한 老後生活手段				
子女의 도움	37.2	27.4	20.8	7.2
資産收入	27.0	27.9	20.6	21.5
貯 蓄	35.4	43.6	54.1	61.3
現存 子女數				
1—2名	28.4	30.1	38.0	30.3
3—4名	33.3	40.0	38.3	38.8
5名以上	33.3	22.2	16.8	17.7
아들이 꼭 있어야 하 는가에 대한 態度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	71.6	65.9	57.6	52.3
딸만 있어도 상관 없다.	21.3	26.7	34.8	37.6

資料 : 趙南勳 等, 出産行態에 영향을 미치는 經濟的 要因分析.

답한 비율은 低所得層에서 37%, 低所得層에서 7%에 불과했으며 「저축」이 가장 중요한 老後生活手段이라고 대답한 부인은 低所得層에서 35%, 高所得層에서 61%로 나타났다. 所得水準別 現存子女數의 分布를 보면 低所得層에서는 5名以上の 子女를 둔 家庭이 33%나 되고 있으나 高所得層에서는 17%에 불과하며 1~2名의 子女를 둔 家庭은 高所得層에서 38%가 되고 低所得層에서 28%였다.

한편 所得水準別로 아들이 꼭 있어야 되겠는가에 대한 대답은 低所得層에서 71%가, 高所得層에서 52%가 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대답하고 있어 低所得層일수록 男兒選好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避妊實踐과 所得水準과의 關係를 보면 所得水準이 낮은층일수록 避妊實踐率이 낮았으며 希望하는 子女數에 있어서는 所得水準이 높으면 子女數는 줄어들고 있다(표 4-2 참조).

表 4-2 : 所得水準別 避妊實踐과 希望子女數

	所得水準			
	40 萬 원 미 만	40 ~ 70 萬	70 ~ 150 萬	150 萬 이 상
避妊實踐率	27.6	38.4	44.2	54.1
平均希望子女數	2,832	2,764	2,618	2,688

## 5. 結婚年令과 出産力

우리나라 女性의 年令別 既婚率 變化趨勢를 보면<sup>1)</sup> 1925 - 1929년 사이에 출생한 女子의 경우 (현재 50代에 해당) 만 17세에 48.2%가 結婚을 하였고 만 20세가 되면 88%가 結婚했다. 그러나 그 以後 女性의 結婚年令은 점점 높아져서 1940년~44년에 출생한 女子의 경우는 (현재 30代 후반과 40代 초반의 여성)만 17세에 結婚한 女子가 2.8%에 불과하며 만 20세가 되어도 25.8% 정도 밖에 結婚하지 않았다 (표 5-1 참조).

이와같은 年令別 既婚率의 급격한 低下는 이 年令層의 出産率을 低下시키는 가장 중요한 要因이 되었다 (표 5-2 참조).

1925년~29년에 출생한 여자의 경우 만 19세까지 出産을 경험한 여성이 30.1%이었으나 1940년~44년에 출생한 女子에서는 4.2%에 불과했고 만 23세까지의 出産經驗率은 1925년~29년 출생한 女子의 경우 81.2%가 出産을 경험하

---

註 1) 강영자, 최병목, 出産間隔의 分析, 家族計劃研究院, 1980.

表 5-1 : 年令別 既婚率의 變化 趨勢

年 령	1925 年 ~ 1929 年 출생한 여자	1930 年 ~ 1934 年 출생한 여자	1935 年 ~ 1939 年 출생한 여자	1940 年 ~ 1944 年 출생한 여자
15	9.2	5.4	0.7	0.6
16	24.4	13.5	3.3	1.4
17	48.2	27.4	7.8	2.8
18	66.7	43.3	16.0	8.0
19	80.2	57.8	31.3	15.8
20	88.0	69.9	45.9	25.8

資料 : 강영자 , 出産間隔에 관한 研究 .

表 5-2 年令別 出産經驗率의 變化 趨勢

年 령	1925 年 ~ 1929 年 출생한 여자	1930 年 ~ 1934 年 출생한 여자	1935 年 ~ 1939 年 출생한 여자	1940 年 ~ 1944 年 출생한 여자
19	30.1	19.2	7.1	4.2
23	81.2	71.1	62.5	43.4
28	93.8	93.2	93.5	89.1

資料 : 강영자 , 出産間隔에 관한 研究 .

였지만 1940 ~ 44 년에 출생한 女子의 경우는 43.4 %로 줄어들었다. 結婚年수에 따른 平均現存子女數를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결혼을 일찍한 婦人の 平均子女數가 결혼을 늦게한 婦人보다 많았다. 例를들어 1920年~ 30年사이에 출생한 女子의 경우 25歲 以後에 결혼한 경우는 平均子女數가 2.50名인데 비하여 19歲이하에서 결혼했을 경우는 4.02名이었다.

한편 결혼년령이 出産力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다른 要因, 예를 들어 자녀가치관이라든가 부인의 교육 수준 거주지배경 등을 一定하게 했을때도 나타나고 있는데 表 5-3에서 MCA分析에서 얻은 1920 ~ 30년 출생한 여자의 總平均으로 부터의 修正된 편차를 보면 19歲 미만에 결혼한 경우 이 연령층의 平均子女數에 비하여 0.317名이 많았고 25歲 이상에 결혼한 경우는 0.870名이 적었다.

---

註 2) Mo-Im Kim, etc., "Age at Marriage, Family Planning Practices, and other Variables as Correlates of Fertility in Korea," Demography, Vol. 11, No. 4,

表 5-3: 結婚年令別 平均子女數에 대한 MCA分析

결혼년령	평균현존 자녀 수	1920 ~ 30년 출생한 여자	
		총평균으로 부 터의 편차	총평균으로 부 터의 수정된 편차*
19 미 만	4.02	0.401	0.317
19 ~ 20	3.80	0.188	0.194
21 ~ 22	3.41	- 0.203	- 0.206
23 ~ 24	3.09	- 0.521	- 0.471
25 ~ 42	2.50	- 1.110	- 0.870
1930 ~ 40년 출생한 여자			
19 미 만	3.28	0.805	0.493
19 ~ 20	3.07	0.601	0.453
21 ~ 22	2.79	0.322	0.200
23 ~ 24	2.12	- 0.351	- 0.275
21 ~ 42	1.71	- 0.756	- 0.463
1940 ~ 50년 출생한 여자			
19 미 만	1.60	0.403	0.120
19 ~ 20	1.40	0.203	0.194
21 ~ 22	1.32	0.131	0.117
23 ~ 24	1.14	- 0.049	- 0.050
25 ~ 42	1.00	- 0.196	- 0.145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13개 변수(예: 이상자녀수, 교육 수준, 거주지 등)에 대한 효과가 같다고 가정했을 경우

資料: Mo-Im Kim, "Age at Merriage, Family Planning Practices, and Other Varzables as Cotrelates of Fertility in Korea" Demography, vol. 11, No. 4.

## 6. 嬰兒死亡과 出産力

嬰兒死亡이 出産力에 미치는 영향은 박<sup>1</sup> (1976년 조사자료)의 연구에서 출산간격, 출산아 進度比 等の 分析을 통하여 다루어졌다. 이 研究에서 밝혀진 주요 結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출산간격의 변화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출산아의 출생순위 (birth order)로 보와 以前 出生兒가 嬰兒死亡이었을 경우와 최소 1회 以上 生存하였을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 出生까지의 출산간격을 살펴보면, 表 6-1에서 볼수 있는 바와같이 영아사망은 출산간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수 있다. 1955年 이전 출생아의 경우 평균 출생간격은 영아사망과 영아생존간에 10.8 個月의 차이를 보이며 1965 ~ 1974년 出生兒에서도 8.4 個月의 差異가 있다.

嬰兒死亡은 또한 후속출생력 즉 출산아 진도비 (parity progression ratio)를 높이고 있다. 表 6-2에서 출산아 진도율을 보면 1955년 이전 出産兒에서 嬰兒死亡일 경우 98 퍼센트가 다음 아이를 갖고 있으며 1955 ~ 64年 出生兒에서는 嬰兒生存의 경우는 69 퍼센트, 嬰兒死亡일 경우 88 퍼센트

---

註 1) 朴丙台, 韓國의 嬰幼兒死亡에 관한 연구, 家族計劃研究院, 1980.

表 6-1 : 嬰兒死亡에 따른 平均 出産間隔

出産年度	出生順位	生 存		死 亡	
		出生數	平均出産間隔	出生數	平均出産間隔
1955 이전	1-2	887	38.5	120	26.8
	2-3	494	38.5	58	28.8
	3-4	238	36.4	16	25.6
	4-5	76	36.6	6	24.8
	5-6	12	35.0	1	20.0
1955 - 64	Tobal	1,707	38.1	201	27.3
	1-2	1,711	33.1	107	25.1
	2-3	1,613	34.1	88	24.8
	3-4	1,290	34.5	73	25.8
	4-5	880	34.9	58	22.5
	5-6	496	36.2	41	26.4
	Tobal	5,990	34.2	367	24.9
1965 - 74	1-2	1,993	37.5	80	20.1
	2-3	1,515	31.2	76	21.9
	3-4	1,073	32.9	65	23.3
	4-5	730	34.0	45	25.2
	5-6	473	32.3	37	23.7
	Total	5,784	30.8	305	22.4

資料 : 朴丙台, 韓國의 嬰兒死亡에 관한 研究.

表 6-2 : 出產順位別 嬰兒死亡에 따른 進度率

出產年度	出產順位	生 存		死 亡	
		出生數	進度率	出生數	進度率
1955 이전	1	914	97.0	123	97.6
	2	510	96.9	59	98.3
	3	247	96.4	16	100.0
	4	77	98.7	6	100.0
	5	12	100.0	1	100.0
	計	1,760	97.0	205	98.0
1955-64	1	1,754	97.5	111	96.4
	2	1,677	96.2	91	96.7
	3	1,411	91.4	79	92.4
	4	1,043	84.4	62	93.5
	5	638	77.7	43	95.3
	計	6,523	91.8	386	95.1
1965-74	1	2,259	88.2	86	93.0
	2	2,076	73.0	81	96.3
	3	1,750	61.3	74	87.8
	4	1,359	53.7	54	83.3
	5	957	49.4	52	71.2
	計	8,401	68.8	347	87.9

資料 : 朴丙台, 韓國의 嬰兒死亡에 관한 研究.

의 出産兒 進度比를 보이고 있어 嬰兒死亡일 경우 出産兒進度比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嬰兒生存 여부에 의한 出産兒 進度比를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바로 이전 두 출생아의 영아생존 여부에 따른 출산아 진도비의 差異를 보면 表 6-3과 같다.

출생순위별 出産兒 進度率 差異가 비교적 심한 1965-74년 出生兒의 경우를 보면 둘째 출생아에서의 出産兒 進度率(둘째 출생아에서 셋째 출생아로 넘어가는 비율)이 두출생아(첫째 및 둘째 출생아)의 嬰兒生存 如否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出産進度率이 둘다 嬰兒生存일 경우 72 퍼센트, 하나가 嬰兒生存일 경우는 먼저 출생아가 嬰兒死亡일 때 91 퍼센트, 나중 출생아가 嬰兒死亡일 경우 96 퍼센트, 둘다 嬰兒死亡일 경우는 100 퍼센트로 둘다 嬰兒死亡일 때 出産兒 進度率이가장높고 하나가 嬰兒死亡일 때 특히 나중 출생아가 영아 사망일 때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셋째 출생아의 出産兒 進度率 및 넷째·다섯째의 出産兒 進度率에서도 거의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섯째 出生兒의 出産兒 進度率은 둘다 嬰兒生存일경

우 49 퍼센트에 비하여 둘중 먼저 출생아가 嬰兒死亡일 경우 58 퍼센트, 둘중 나중 출생아가 嬰兒死亡일 경우 76 퍼센트, 둘다 영아사망일 경우 100 퍼센트 등으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嬰兒死亡이 出産兒 進度比率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면  $i$  번째 출생아에서  $i + 1$  번째 출생아로 넘어가는 출산아 진도 비율은  $i$  번째 출생아의 영아생존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i + 1$  번째 출생아의 영아생존 여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  번째와  $i - 1$  번째 출생아 둘다 영아 사망일 경우 出産兒 進度比率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i$  번째 出生이 嬰兒死亡일 경우가 다음으로 높고,  $i - 1$  번째 出生이 嬰兒死亡일 경우가 그다음 順 등으로  $i$  및  $i - 1$  번째 出生兒 둘다 嬰兒 生存인 경우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은 출산아 進度比率을 보인다 하겠다.

以上에서 嬰兒死亡 여부별 出産間隔과 出産兒 進度比率 差異를 考察함으로써 嬰兒死亡은 상대적으로 出産力을 높이는 중요한 要因이 됨을 보았다.

表 6-4에서는 嬰兒死亡을 경험한 부인과 경험하지 않은 부인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의 平均 生存子女數, 平均出生

表 6-3: 嬰兒死亡에 따른 出産進度率

出産 進度率	영아 사망	出産年 度						
		1955 이 전		1955 - 64		1965 - 74		
		i to i+1	i	Number	진도율	Number	진도율	Number
2-3	S	S	437	97.0	1,577	96.1	1,990	72.2
	D	S	73	95.9	100	97.0	86	90.7
	S	D	40	97.5	78	96.2	71	95.8
	D	D	19	100.0	13	100.0	10	100.0
3-4	S	S	208	95.7	1,337	90.9	1,669	60.5
	D	S	39	100.0	73	100.0	80	78.8
	S	D	12	100.0	70	94.3	70	87.1
	D	D	4	100.0	9	77.8	4	100.0
4-5	S	S	68	98.5	987	84.1	1,291	53.4
	D	S	9	100.0	54	90.7	68	58.8
	S	D	4	100.0	56	92.9	43	83.7
	D	D	2	100.0	6	100.0	41	81.8
5-6	S	S	11	100.0	597	76.5	909	49.0
	D	S	1	100.0	41	95.1	48	58.3
	S	D	1	100.0	31	93.5	50	70.0
	D	D	0	-	12	100.0	2	100.0

子女數, 平均 妊娠數 등을 비교하였다.

먼저 平均 出生子女數의 경우 영아사망을 경험하지 않은 부인이 5.2명인데 비하여 영아사망을 경험한 부인이 3.4명으로 거의 2명에 가까운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들 부인의 현재 年令別로 구분하였을 때 嬰兒死亡 경험 부인과 비경험부인간에 각 年令層別로 거의 모두 1명 이상의 平均出生兒數 차이를 보이고 있다. 平均生存子女數의 경우 영아사망을 경험한 부인과 경험하지 않는 부인간에 출생아수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큰 차이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약 0.7명의 차이를 나타내며 각 年令層別로는 영아사망을 경험한 부인이 약간씩 더 많은 평균 생존자녀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嬰兒死亡의 時機 (영아사망시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영아사망을 경험한 부인의 生存子女數가 영아사망을 경험하지 않은 부인의 生存子女數보다 최소한 적지는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영아사망을 경험한 부인의 出生兒 내지 생존 자녀수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풀이 된다. 다시 말해 嬰兒死亡이 후속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出産間隔, 出産兒進度比率 그리고 出産力 水準比較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 6-4 : 嬰兒死亡別 平均 現在 子女數, 出產兒數, 임신回數

婦人年令	平 均 值		
	嬰 兒 有 (N)	死 亡 無 (N)	合 計 (N)
現在子女數		1 433	
25 미 만	1.33( 24)	1.31( 433)	1.32( 457)
25 - 29	2.22( 59)	2.08(1,073)	2.09(1,132)
30 - 34	3.15(103)	3.11(1,020)	3.11(1,123)
35 - 39	3.80(170)	3.85( 949)	3.84(1,119)
40 - 44	4.76(168)	4.42( 800)	4.48( 968)
45 - 49	4.84(148)	4.66( 562)	4.70( 710)
計	3.94(672)	3.26(4,837)	3.34(5,509)
出產兒數			
25 미 만	2.33( 24)	1.32( 433)	1.38( 457)
25 - 29	3.20( 59)	2.09(1,073)	2.15(1,132)
30 - 34	4.23(103)	3.15(1,020)	3.25(1,123)
35 - 39	4.94(170)	3.95( 949)	4.10(1,119)
40 - 44	5.98(168)	4.60( 800)	4.84( 968)
45 - 49	6.30(148)	5.03( 562)	5.30( 710)
計	5.15(672)	3.37(4,837)	3.58(5,509)
妊娠回數			
25 미 만	3.04( 24)	1.81( 433)	1.88( 457)
25 - 29	4.10( 59)	2.93(1,073)	2.99(1,132)
30 - 34	5.54(103)	4.51(1,020)	4.60(1,123)
35 - 39	6.55(170)	5.61( 949)	5.76(1,119)
40 - 44	7.51(168)	6.21( 800)	6.43( 968)
45 - 49	7.47(148)	6.10( 562)	6.39( 710)
計	6.50(672)	4.60(4,837)	4.83(5,509)

資料 : 朴丙台, 韓國의 嬰兒死亡에 관한 研究.

嬰兒死亡을 경험한 부인과 경험 하지 않은 부인의 總妊娠數 비교에서도 평균 출생아 수 비교에서 보여준 이상의 큰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앞에서 임신소모 경험이 많은 부인의 영아사망 경험율이 높았던 사실을 볼 수 있다.

### Ⅲ. 家族計劃事業과 出産力

家族計劃事業이 出産力 低下에 미친 영향을 評價하기 위해서는 家族計劃事業이 없었을 경우 出産力 低下 趨勢와 家族計劃事業이 投入된 後의 出産力 低下 趨勢를 비교하면 간단히 評價될 수 있다. 그러나 問題는 이미 家族計劃事業이 投入되고있는 地域에서 家族計劃事業이 없었을 경우 出産力 低下 趨勢를 파악할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家族計劃事業 效果의 측정은 직접비교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할수는 없고 다만 本考에서는 과거의 出産力調査 등에서 分析된 資料를 利用하여 우리나라에서 家族計劃事業이 着手되어 發展되고 확대보급되어 오는 過程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出産力과 관련된 몇가지 指標의 시계열적 변화 추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국규모의 出産力調査가 실시된것은 1968年이다. 이 調査<sup>1)</sup>는 全國 63個(市部 23個, 郡部 40個) 標本地域에서 8,774 家口에 대하여 50歲 미만의 婦人을 상대로 出産力과 家族計劃에 관한 調査를 하였다. 이 調査結果 밝혀진 당시의 出産力 水準을 家族計劃事業이 着手되기 以前이었던 1960年의 出産力 水準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註 1) 고갑석, 스미스, 1968년도 韓國婦人의 出産力 및 家族計劃 實態調査報告, 國立家族計劃研究所, 1970.

表 III-1: 家族計劃事業 初期段階에서의 우리나라 婦人의  
出産率 低下

年 令	1960 年	1968 年	1960-1968 年 사이 전체 出産율저하 에 대한 비율 (%)
15 ~ 19	37	7	8.6
20 ~ 24	283	146	39.1
25 ~ 29	330	301	8.3
30 ~ 34	257	201	16.0
35 ~ 39	196	120	21.7
40 ~ 44	80	65	4.3
45 ~ 49	14	7	2.0
合計出産率 ( T F R )	5,985	4,235	100.0

資料 : 1960 年度 人口센사스 및 1968 年度 全國出産力調査.

1968 年の 出産力은 1960 年과 비교하여 TFR 에 있어서 29.2 %가 줄어들었으며 이와같은 出産力의 低下를 연령층별로 보면 24 歲 以下 연령층에서의 出産力 低下가 전체 出産力 低下의 47.7 %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25 歲以上 연령층이었다.

24歲 以下 年令층에서의 出産力 低下는 주로 결혼年令의 상승으로 인하여 결혼율이 낮아진 때문이며 家族計劃 實踐에 의한 出産力 低下는 30歲 以後 年令층에서 볼수 있다.

1962年 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은 1962~1967년 사이에 자궁내장치 시술 1,048,980件, 정관수술 102,009件, 콘돔공급 150,000名의 實績을 이룩하였으며 이는 당시 우리나라 전체 有配偶 可妊婦人의 28%에 해당된다.

事業이 着手된지 불과 수년동안에 이 처럼 淸算할만한 事業成果를 이룩할 수 있었던것은 전국 保健所組織網을 통한 效率的인 事業組織의 구축과 아울러 施術醫師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一般國民들의 家族計劃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라고 하겠다. 여하튼 初期段階의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의 效果는 事業 以前의 TFR 6에서 1968년까지 4.2로 끌어 내리는데 있어 주로 30歲 以後의 出産力을 低下시킴으로써 전체 出産力 低下의 44%를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調査에서 밝혀진 婦人의 年令別, 생존자녀수별 최종임신의 희망여부를 보면 29歲 이하 年令층에서 6%, 30~39세 年令층에서 26%, 40~44세 年令층에서 48%가 마지막 임신을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많은 부인들이 추가 임신을 원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정부에서 공급되는 피임

방법들이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부인들의 出産力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表 Ⅲ - 2 : 婦人年令別 최종임신 희망여부

구 분	29 세이하	30 - 39 세	40 - 44 세
한번도 임신한 적 없다.	8.4	1.4	1.5
마지막 임신이 원했던 임신이였다.	84.3	71.1	48.4
마지막 임신이 원하지 않았든 임신이였다.	6.1	26.0	47.9
미 상	1.2	1.5	2.2
합 계	100.0	100.0	100.0

資料 : 1968年度 全國出産力 調査.

그後 제 2 차로 1971년에 전국규모의 出産力調査가 實施되었다. 이 調査에서는 전국 62個 調査區에서 (都市 36個, 農村 26個 地域) 6,860 家口가 調査되었다.

이 調査에서 밝혀진 주요 出産力 指標의 하나는 現想子女數에 관한것이 었다.

당시 두자녀를 理想的이라고 대답한 婦人은 전국적으로 6%에 불과했으며 이를 都市와 農村으로 나누어 보면 都市

에서 10%, 농촌에서 4%의 부인만이 두자녀가 理想的이라고 하였고 대부분의 부인이 3명~4명의 자녀를 理想的이라고 대답했다.

表 III-3 理想子女數의 分布

理想子女數	全 國	都 市	農 村
1 名	0 %	0 %	0 %
2 名	6 %	10 %	4 %
3 名	42 %	55 %	33 %
4 名以上	52 %	45 %	63 %

資料 : 1971 年度 全國出産力 調査.

理想的인 아들수에 대해서도 2명의 아들이 理想的이라고 대답한 부인이 64%이었고 3명의 아들이 理想的이라고 대답한 부인은 39%였다. 그러나 都市-農村間에는 理想的인 아들수에 差異가 있어 都市의 경우 2명이 76%, 3명이 14%인데 비하여 農村은 2명이 55%, 3명이 39%로 되어있었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子女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었고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임신가능한 최대수의 자녀

를 출산해 왔다. 家族計劃事業이 시작되기 以前의 우리나라 婦人의 平均 임신회수는 7.3회 정도였고 平均 出産兒數는 6.7名 정도였다.

그러나 1962년~1971년의 10年동안에 우리나라 婦人의 家族計劃에 대한 態度는 크게 달라져서 子女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것이 아니라 3名~4名 정도가 理想的이라고 생각하게끔 되었다.

한편 피임방법의 普及과 아울러 家族計劃을 하기 위하여 人工妊娠中絶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1965年에 實施되었든 家族計劃 實態調査에 의하면 당시 有配偶 可妊婦人의 11%정도가 人工임신중절을 경험했으나 1971年 調査에서는 26%로 크게 늘어났다.

3번째의 전국규모 出産力調査는 1974年에 實施되었다. 이 調査는 世界出産力調査事業의 일환으로 韓國에서 實施되었는데 21,248 家口에 대한 家口調査와 5,724 名의 婦人에 대한 個人調査가 實施되었다.

이 調査에서 밝혀진 당시 우리나라의 出産力 水準은 TFR로 측정하여 3.6이었으며 이를 1968年 調査에서 밝혀진 4.2와 비교해 볼때 15% 낮아졌다.

表 III-4 : 1968年과 1974年 調査에서 밝혀진 年齡別  
出産率水準

年齡層	1968年 調査值	1974年 調査值
15 ~ 19	7	11
20 ~ 24	146	159
25 ~ 29	301	276
30 ~ 34	201	164
35 ~ 39	120	74
40 ~ 44	65	29
45 ~ 49	7	3
TFR	4,235	3,580

資料 : 1968年度 및 1974年度 全國 出産力調査.

1960年~1968年 사이의 出産力 低下는 주로 24歲 以下 年령층에서 結婚率이 낮아짐으로 TFR이 낮아졌으나 1968年~1974年 사이에는 오히려 24歲 以下 年령층의 출산율이 약간 높아졌으며 45명 35歲 以後 年령층에서 출산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대부분이 家族計劃事業에 의한 피임 실천 家庭이 늘어난 때문일 것이다.

이 調査에서 밝혀진 有配偶 可妊婦人の 年令層別 피임방법의 사용경험율을 보면 30 ~ 34 歲 年令층에서 69 %가, 35 歲 ~ 49 歲 年令층에서 74 %가, 40 ~ 44 歲 年令층에서 61 %가 피임방법을 사용해 본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때 까지 정부 가족계획사업을 통하여 보급된 피임방법은 자궁내장치 시술이 총 3,163,786 件 이였고 정관수술과 난관수술이 합하여 250,892 件 그리고 약 15 萬名에 대한 콘돔공급, 20 萬名에 대한 먹는 피임약 공급이었다.

1974 年 調査報告書는 家族計劃事業이 出産力 低下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避妊方法에 대한 知識은 人口의 각 階層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임의 실천도 子女를 더 以上 원치 않는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有配偶 婦人에게 普及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피임실천은 對象者の 特性別로 居住地域이나 教育水準 및 男便의 職業 등에서 有意性있는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人工 妊娠中絶 역시 계속적으로 韓國에서 出産力 決定에 主要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婦人의 인공임신 中絶 盛行은 피임방법의 代案으로서 보다는 一種의 補充的인 方便으로 利用되고 있는것 같다. 아직도 불임수술은 광범하게 普及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韓國 家族計劃事業에서 潛在 領域을 維持하고 있어 20 歲 ~ 24 歲의 젊은 婦人層에서 약 1/4 과 25 歲 ~ 29 歲의 過 半數 以上이 子女

를 더 以上 원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 이들에 불임수술을 채택한다면 실제로 많은 人口學的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라고 言及하고 있다.

1970年代에 들어서서 家族計劃事業을 위한 弘報活動은 두 子女를 갖도록 하는데 焦點을 두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라는 標語가 提示되었다. 그것은 家族計劃事業이 시작된지 10年 後에야 비로소 子女의 性選好와 「둘」이라는 數的인 概念을 強調하기에 이른 것이다.<sup>2)</sup>

「둘낳기 운동」의 결과 1974年 調査에서 밝혀진 우리나라 婦人의 희망 자녀수 분포를 보면 20歲~24歲 年령층에서 42%가 두자녀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25歲~29歲 年령층에서는 39%, 30歲~34歲 年령층에서는 24%가 두자녀를 희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가정이 3자녀 혹은 4자녀를 희망하던 1960年代 후반과는 달리 이제 모든 가정이 적으면 「둘」 많아도 「셋」을 희망하는 상태로 가족계획사업은 발전되어 왔다.

가장 最近에 實施되었든 出産力調査는 1978年度 였다. 이 調査에서 밝혀진 出産率은 TFR이 2.7 이었다. 1974 년의 3.6 에 비하여 25% 줄어들었다.

---

註 2) 공세권의, 한국가족계획사업, 家族計劃研究院, 1981.

이를 연령층별로 보면 1974 ~ 1978年 사이의 TFR 低下의 약 17.5%는 24歲 以下 연령층에서 기인되며 25歲 ~ 29歲 연령층이 18.7%, 30歲 以上 연령층이 63.6%로서 이 기간 동안의 출산율 저하는 주로 30歲 以上 연령층에서의 피임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에 기인되었다.

1979年度에 實施된 避妊普及 實態調査에 의하면 우리나라 婦人의 年令別 避妊實踐率은 20歲 ~ 24歲 연령층이 19%,

表 Ⅲ-5 1974年과 1978年の 出産率 低下

年 齡	1974 年	1978 年	1974-1978年 사이
			全體 出産率 低下에 대한 比率(%)
15 ~ 19	11	6	2.9
20 ~ 24	159	134	14.6
25 ~ 29	276	244	18.7
30 ~ 34	164	119	26.3
35 ~ 39	74	29	26.3
40 ~ 44	29	13	9.3
45 ~ 49	3	0	1.7
TFR	3,580	2,7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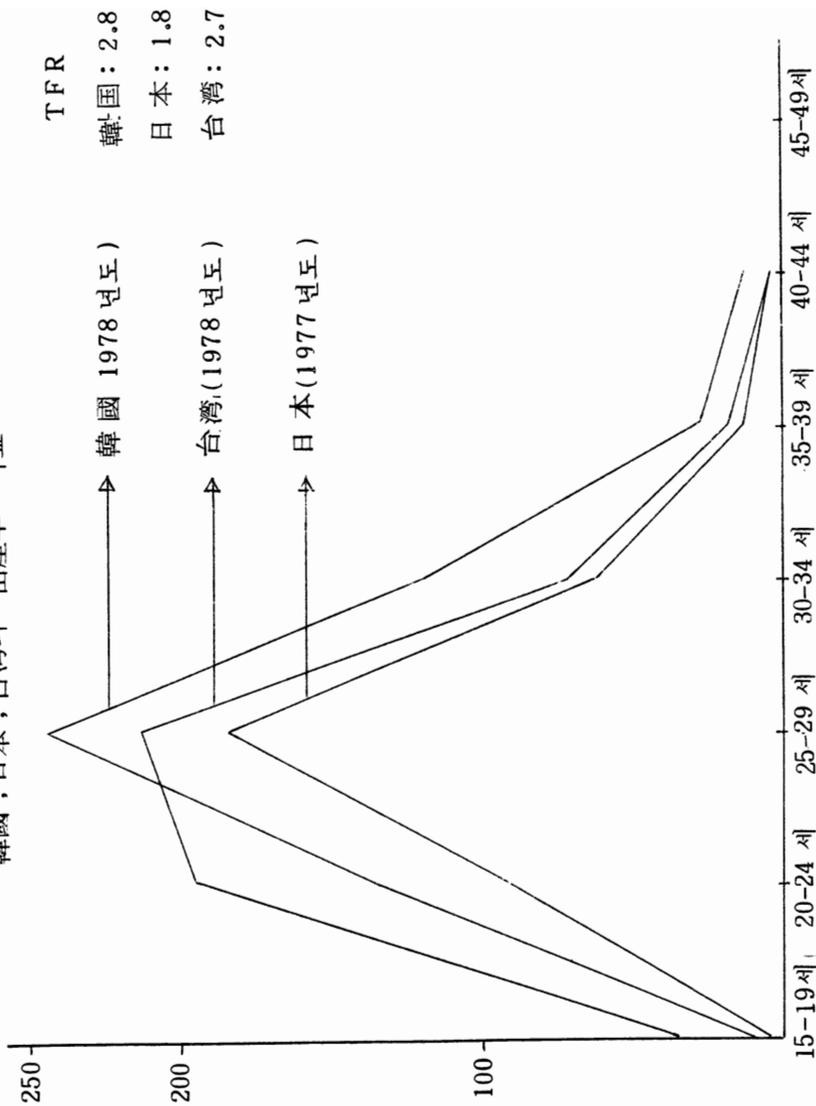
資料 : 1974年度 및 1978年度 全國出産力 調査.

25歲~29歲 年令층이 41%, 30歲~34歲 年令층이 0.9%, 35歲~39歲 年令층이 72%로 되어 있다.

1962年 부터 시작된 家族計劃事業으로 因하여 우리나라 可妊婦人들의 피임실천율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지만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避妊實踐率은 先進諸國과 비교해보면 日本이 可妊婦人의 61%, 美國은 68%, 프랑스는 79%가 避妊을 實踐하고 있다. 아세아 國家중에서도 出産力이 낮은 대만, 싱가포르 등의 避妊實踐率도 우리나라 보다는 높아 대만이 1976년에 66%, 싱가폴은 1978년에 71%였다.

韓國, 日本. 대만의 最近의 出産率을 비교해 보면 日本은 모든 年令層에서 韓國보다 出産率이 낮다. 반면 대만은 24歲 以下 年令층에서는 우리보다 出産率이 높지만 25歲 以上 모든 年令층에서 우리 보다 낮은 出産率을 보이고 있다.

韓國, 日本, 台灣의 出生率 比較



## IV. 開發途上國에서의 出生力 低下要因에 대한 多變數 回歸分析

지금까지 出生力の 低下와 관련된 個別 要因에 대한 分析 結果가 제시되었다.

本考에서는 이들 要因들이 同時에 고려되었을 경우 各 要因의 相對的인 重要도를 多變數 回歸分析 結果를 中心으로 살펴보고져 한다.

Manldin과 Berelson은 94個 開發途上國의 CBR低下와 社會經濟的 指標의 變動 및 家族計劃事業 進도를 測定하여 多變數 回歸分析을 시도하였다.

이 論文에서 밝히고 있는 主要結果를 살펴보면 出生율의 저하와 밀접한 關係가 있는 主要 社會경제지표와 出生율(CBR)저하간에는 表 IV-1과 같은 關係가 있다.

문맹율이 낮아진 다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때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영아사망율이 낮아질 때 出生율이 얼마나 줄어들겠는가를 計量化 하고 있으며 所得分配, 平均壽命, 都市化 等を 관련시켜서도 出生율의 저하를 計量化하고 있다.

1965年~1975年 사이의 世界各國의 인구규모별 出生율(CBR)의 低下를 보면 가장 出生율이 낮아진 국가는 인구

表 IV-1: 社會・經濟指標과 出生率과의 關係

研究	社會經濟指標	出生率
Gregory	문맹율이 1% 낮아지면	출생율을 0.19% 낮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 높아지면	출생율을 0.14% 낮춘다.
	농촌지역의 영아사망율이 1% 낮아지면	출생율을 0.19% 낮춘다.
World Bank	저소득층 소득분배율이 1% 높아지면	출생율을 2.9% 낮춘다.
	평균수명 1년 연장되면	출생율을 1.86% 낮춘다.
Beaver	도시인구비율 20% 높아지면	출생율을 1.24% 낮춘다.

資料 : Mauldin and Berelson, Conditions of Fertility Decline in Developing Countries : 1965 - 75.

國 家	人口 35 歲 以上		15 - 35 歲 間		5 - 15 歲 間		0.5 - 5 歲 間	
	國 家	저하율 (%)	國 家	저하율 (%)	國 家	저하율 (%)	國 家	저하율 (%)
벨기에	2	이푸카니스탄	-2	앙골라	4	코스타리카	29	
부라지	10	알제리아	4	볼리비아	1	홍콩	36	
이집트	17	버마	3	칠레	29	요르단	1	
인도	16	콜롬비아	25	쿠바	40	쿠웨이트	5	
인도네시아	13	에티오피아	2	도미니카	21	자마йка	21	
한국	32	이란	2	가나	2	싱가폴	40	
멕시코	9	모로코	2	이탈리아	0	콩고	-2	
나이지리아	1	페루	2	말레이시아	26	온두라스	7	
파키스탄	1	수단	0	스리랑카	18	레바논	2	
필리핀	19	대만	30	튀니지	24			
태국	23							
터키	16							

資料 : Mauldin and Berelson, Conditions of Fertility Decline in Developing Countries: 1965 - 75.

규모가 35백만 이상인 國家에서 한국(32% 저하)을 비롯하여 태국(23% 저하) 필리핀(19% 저하) 이집트(17% 저하)等이고 인구규모가 15~35백만인 국가에서는 대만(30% 저하) 콜롬비아(25% 저하)를 들수 있고 인구 5~15만인 국가에서는 칠레(29% 저하) 말레이시아(26% 저하)等이다. 마지막으로 인구규모가 0.5~5백만인 국가에서는 싱가포르(40% 저하) 홍콩(36% 저하)等이다(表 IV-2를 참조).

出生率(KBR)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국가들의 CBR 저하 요인을 연령구조의 변동, 결혼상태의 변화, 배우출산율의 저하등으로 나누어 보면 韓國의 경우 1966年~1974年 사이 출생율(CBR)이 28% 낮아졌는데 연령구조에 의한 영향이 9%, 나머지 91%는 배우출산율의 저하에 의한 것이다. 최근 출생율(CBR)이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1957年~1970年 사이에 48%가 줄어들었는데 인구의 年令構造는 오히려 CBR를 13% 높히는 효과를 주었으나 결혼년령의 상승에 의하여 53%, 배우출산율의 低下에 의하여 60%가 저하되었다. 대만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1965~1975年 사이에 CBR가 28% 낮아졌는데 연령구조 효과가 -42%로 되어있어 오히려 CBR를 높이고 효과를 가져왔으며 結婚年令에 의하여 49%, 配偶出產率의 저하에 의하여 93% 저하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表IV-3참조).



한편 主要 出産力 低下 要因들간의 相關關係를 살펴보면 성인문맹율,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취학율, 영아사망율, 15歲 ~ 64歲 인구의 비농업부분 취업율, 일인당 국민소득, 인구 10 만 이상의 도시인구 비율 등의 社會經濟的 開發 變數間에는 서로 높은 相關關係가 있음을 볼수 있다(表Ⅳ-4 참조).

따라서 이들 要因을 同時에 고려한 分析이 필요한데 우선 이들 要因 각각을 1965 ~ 1975 年사이의 출생율 (CBR)저하와 相關시켜 상관계수를 측정해 보면 表Ⅳ-5 와 같다. 평균수명, 영아사망율, 성인문맹율 등은 出生率의 低下와 보다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는데 일인당 국민소득은 오히려 낮은 계수를 보였다.

그러나 表Ⅳ-6 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들 變數들에 대한 多變數 回歸分析 結果는

첫번째 回歸分析에서와 같이 성인문맹율, 국민학교, 중학교, 취학율, 평균수명, 영아사망율, 비농업부분 취업율, 일인당 국민소득 등 出産率과 相關이 깊은 6個 社會經濟的 變數와 출생율 (CBR) 과는 Multiple Regression Coefficient (R)가 0.81 이었으며  $R^2$ 는 0.66 이었다. 두번째 回歸分析에서 성인문맹율, 국민학교, 중학교 취학율, 영아사망율, 인구 10 만이상의 도시인구 비율 등에 관한 變數를 除外한 結果는 R이 0.76 이었고  $R^2$ 는 0.58 정도되었다. 이는 평균수명과 비농업 부문

表 IV-4 : 主要 出產率低下 要因間의 相關係數

變數	성인 문맹율	국민학교 중학교 입학	영아 사망율	15-64 세 인구 비농업 부문 취업율	일인당 국민소득	인구 10 만 이상 도시 인구 비율
성인 문맹율	1.00					
국민학교, 중학교 진학율	0.80	1.00				
영아사망율	- 0.78	- 0.71	1.00			
15 ~ 64 세 인구 ( 남자) 비농업부문취업율	0.65	0.73	-0.71	1.00		
일인당 국민소득	0.23	0.38	-0.37	0.62	1.00	
인구 10 만 이상 도시인구비율	0.45	0.58	-0.54	0.78	0.57	1.00

資料 : Mauldin and Berelson, Conditions of Fertility Decline in Developing

Countries : 1965 - 75.

表 IV-5: 主要 社會經濟變數와 CBR 과의 相關係數

變 數	1965 ~ 1975 年 사이의 CBR 저하와의  상관계수
평 균 수 명	0.76
영 아 사 망 율	0.71
성 인 문 맹 율	0.70
비농업부분 취학율 ( 남자 )	0.61
국민학교, 중학교 취학율	0.60
인구 10 만이상 도시인구비율	0.42
일인당 국민소득	0.13

資料 : Maudlin and Berelson, Conditions of Fertility Decline in Developing Countries : 1965 ~ 75,

表 IV-6 : CBR 의 低下와 社會經濟的 變數 및 家族計劃事業과의 多變數分析

Multiple regression							
	1	2	3	4	5	6	7
R	0.81	0.76	0.80	0.80	0.81	0.81	0.91
R <sup>2</sup>	0.66	0.58	0.64	0.64	0.66	0.16	0.83
變數	Beta Coefficients						
성인 문맹률	0.08	-	-	-	0.04	0.08	0.04
국민학교, 중학교취학률	-0.06	-	-	-	-	-0.06	0.04
평균수명	0.52	-0.77	0.69	0.57	0.53	0.52	0.11
영아사망률	-0.13	-	-	-0.14	-0.13	0.13	-0.06
비농업부분취업률(남자)	0.28	-0.01	-0.24	0.24	0.26	0.28	0.11
일인당국민소득	0.28	-	-0.29	-0.29	-0.28	-0.28	-0.10
인구 10만이상도시인 구비율	0.00	-	-	-	-	-	0.04
가족계획사업	-	-	-	-	-	-	0.65

資料 : Mauldin and Berelson, Conditions of Fertility Decline in Developing

Countries : 1965 - 75.

의 취업율 만으로도 出生率 低下의 58% 정도는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이며 주요 社會經濟 變數중에서도 베타계수(beta coefficient)가 가장 높은 變數는 평균수명이었으며 그다음은 일인당 국민소득, 비농업부분의 취업율 등이었다. 回歸分析의 마지막 (表 IV-6에서 7)을 보면 가족계획사업 효과를 감안했을 때 回歸方程式의 R는 0.91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출생율의 저하는 앞에서 언급한 7개의 社會經濟的 變數와 家族計劃事業效果에 의하여 83%가 설명된다는 의미이다. 가족계획사업을 回歸方程式에 넣었을 때 各各의 社會經濟的 變數의 베타계수는 매우 적어져서 평균수명의 경우도 0.11, 비농업부분 취학율도 0.11, 일인당 국민소득에서도 -0.10으로 줄어 들었다. 이는 家族計劃事業이 다른 社會經濟的 變數에 비하여 出生率의 低下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變數라고 설명할 수 있다.

結論적으로 最近 10年間の 開發途上國들의 出生率(CBR) 低下는 保健水準의 向上, 教育水準의 向上, 産業構造의 改善, 都市化, 所得水準의 向上 등 일련의 社會經濟開發 效果에 의해서 出生率 低下의 51.3%가 설명될 수 있는가 하면 家族計劃事業 만으로도 出生率 低下의 60.7%가 설명되고 있다.

즉 家族計劃事業은 여타의 社會經濟的 變數에 앞서 出生率을 低下시킨 가장 중요한 變數였다.

CBR 와 社會·經濟的 變數 및 家族計劃事業과의  
多變數 回歸分析에서 얻은  $R^2$  의 값

평균수명

0.58

평균수명 + 영아사망율

0.59

평균수명 + 영아사망율  
+ 성인문맹율

0.61

평균수명 + 영아사망율  
성인문맹율 + 비농업부  
문취업비율

0.61

평균수명 + 영아사망율  
+ 성인문맹율 + 비농업  
부문취업비율 + 도시화  
+ 취학율

0.62

평균수명 + 영아사망율  
+ 성인문맹율 + 비농업  
부문취업율 + 도시화 +  
취학율 + 일인당국민소  
득

0.66

평균수명 + 영아사망율  
+ 성인문맹율 + 비농업  
부문취학율 + 도시화 +  
취학율 + 일인당국민소  
득 + 가족계획사업

0.83

表 IV-7: CBR低下와 家族計劃事業 및 社會經濟開發效果

출산력 저하요인	CBR 저하에 대한 백분율
1. 사회경제개발만으로	51.3
2. 가족계획사업만으로	60.7
3. 사회경제개발+가족계획사업	68.1
4. 순 사회경제개발효과 (3-2)	7.4
5. 순 가족계획사업효과 (3-2)	16.8

資料: Mauldin and Berelson, Conditions of Fertility Decline in Developing Countries: 1965-75.

